

옛 전남도청 원형에 가깝게 복원된다

최종보고회서 옛 도청 6개관 복원 기본계획 공식발표

이듬해 6월까지 추가 용역 거쳐 설계·시공안 마련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이 원형에 가깝게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9일 오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고 '옛 도청 6개관 복원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옛 도청 본관·별관·회의실, 전남경찰청(전남도경찰국) 본관·민원실·상무관 등 6개관 내·외부와 연결 통로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인을 제시했다.

도청 본관과 별관 본관과 회의실을 잇는 통로를 복원하고 본관 서무과(1층)와 도지사실(2·3층)을 본래 모습대로 복원하기로 했다.

본관 서무과는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 상황실로 쓰였다.

시민군 식사장소·무기고로 활용됐고 1980년 5월27일 최후 항쟁 당시 시민군 피로였던 '도청 민원·회의실'은 통로(도청경찰국)와 외부 계단을 복원한다.

시민군이 보초를 섰던 '도청 별관'은 건축·소방법을 고려해 3~4층만 복원하기로 했다. 1~2층은 전당 입구로 사용된다.

본관 서무과 복원 과정에 사라지는 엘리베이터는 별관에 다시 설치된다.

희생자 수습과 신원 확인 장소였던 '도청경찰국'은 보강재를 유지한 채 출입구와 내부 공간(중앙계단실 포함)이 전면 복원된다.

상무관도 원형 모습 그대로 바꾼다. 도청 본관과 도청경찰국 사이에 있는 방문자센터는 철거된다.

5·18 당시 도청경찰국 등지에 남겨진 총탄 자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인 기관의 감정을 거쳐 복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17일부터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온 연구원은 5·18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도청 원형 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기본계획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체부는 이듬해 6월까지 추가 용역을 통해 설계·시공안을 마련한다. 이르면 이듬해 10월부터 복원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 개관한 문화전당 건립 과정에 옛 도청이 리모델링되면서 방수실이 철거되고 시민군 상황실 자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시민군 지도부가 활동했고 최후의 피로였던 옛 도청 본관과 별관 3~4층은 단절됐다. 5·18 희생자 신원 확인 장소였던 옛 전남경찰청과 경찰청 민원실도 변형됐다.

신봉우 기자

동구,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 지원

광주 동구가 노후 슬레이트 철거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33만원을 지원하는 '2019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 실거주자 중 철거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이며, 희망지는 2월 22일까지 건축물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대지원 금액 33만원을 초과하는 추가비용은 자부담이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따른 지붕개량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서구, 커뮤니티 케어 준비 박차

광주 서구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통합돌봄 선도사업) 공모 참여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분야별 민·관 협력과 다자중 연계시스템을 구축 서구민의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TF팀 구성 등 공모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2026년 초고령 사회에 대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이다. 공모는 2월초 접수를 시작으로 3월 말 최종 선정결과 발표까지 두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은 6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남구, 평일 공공도서관 오후 10시까지 개방

광주 남구는 직장인과 학생 등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평일 도서관 열람실과 자료실의 개방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남구는 29일 "오늘부터 남구 푸른길 도서관과 청소년 도서관의 평일 개방시간이 기존 오후 8시부터 10시로 2시간 연장되며, 야간 도서관 개방 범위도 기존 열람실에 한정했던 것을 자료실까지 확대해 개방·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구는 최근 도서관 운영 보조 인력을 보강했으며, 도서관 근무 직원들의 유연 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주월동 푸른길도서관과 봉선동 청소년 도서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고,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북구, 미술과 함께하는 어린이 세급교실 운영

광주 북구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영신)과 함께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술과 함께하는 세급 강좌'를 실시한다.

광주 북구는 "동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세급에 대한 중요성과 납세의무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어린이 세급교실을 본격 운영한다"라고 29일 밝혔다.

북구는 미술공예와 함께 어렵고 딱딱한 세급이해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강좌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급교실은 세급의 종류, 납부방법, 세급이 쓰이는 곳 등 세급에 대한 기초지식을 미술공예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유도하고 OX퀴즈 등 이벤트도 준비해 학생들에게 선문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북구에서 23년간 지방세 실무경력을 쌓고 100여 회 이상의 미술재능 나눔을 실천한 지방세업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광산구, 지하철 송정공원역 스마트도서관 개관

오는 31일 광주 광산구가 광주 최초로 광주지하철 1호선 송정공원역 1, 2번 출구 방면에서 '스마트도서관'을 설치 개관식을 연다.

시민에게 생활밀착형 도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스마트도서관은, 1년 365일 오전5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 무인 자동화 도서 대출·반납 시스템.

광산구는 이번에 송정역공원 이외에도 신창동 행정복지센터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 운영에 들어간다.

장덕·야기꽃·첨단·신가·운남어린이 도서관에서 발부한 광산구립도서관회원증만 있으면 누구나 스마트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를 대출·반납할 수 있다.

임형택 기자

광주 숙박업소 신양파크호텔 매각설 '술술'

연말까지 운영 뒤 주택단지 건설

광주지역 대표 호텔인 신양파크호텔의 매각설이 불거졌다.

29일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신양파크호텔은 지역 한 건설업체와 매각에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매입 의사를 밝힌 업체는 올해 말까지 호텔을 운영한 뒤 내년부터 신양파크호텔 부지(동구 지산동 20의8) 3만1825㎡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는 계약금 10억원을 호텔 측에 건냈으며 총 200억원 규모의 매각대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설에 대해 신양파크 호텔 측은 "현재로서는 발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매각설과 함께 알려진 주택단지 건립계획에 대해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이재창 무등산보호단체

협의회 본부장은 "주택단지 건설로 인한 교통혼잡, 생활소음, 경관훼손 등은 불가피하다"며 "수십년 간 무등산을 지키고 가꿔온 시민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아직 건축사업 계획이나 관련 민원이 접수, 파악된 바는 없다"면서 "주택단지 건설이 가시화되면 사업계획서 승인 등 건축·환경 관련 법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호텔 부지는 이미 개발이 허가된 내지 지목이기 때문에 지목변경 등 건축허가에는 법적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 부지 외에 주변 산림을 추가로 개발하거나 도로를 확장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심의가 필요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1980년 건립돼 현재 특급호텔로 운영 중인 신양파크호텔은 무등산 일대가 흰하 보이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지역 대표 고급호텔로서 명성을 떨쳤다.

강병문 농어촌공 기반조성이사, 곡성 성덕지구 농촌융수개발사업 현장점검

"안전문제에 역량 투입해 줄 것 당부"

한국농어촌공사 강병문 기반조성사가 29일 곡성 성덕지구 다목적농촌융수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현장의 안전 시설 및 위기상황 대응체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석균)에 따르면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공사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 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실시됐다.

고령배 곡성지사장으로부터 성덕지구 다목적농촌융수개발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강병문 이사는 "안전문제가 무엇보다 우

선한 국가적 과제로 주목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문제에 역량을 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고 현장의 소리를 반영함으로써 현장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 성덕지구 다목적농촌융수개발사업이 2020년 완공되면 곡성군 오산면과 옥곡면 일원 14개 리 428ha에 안정적인 농촌융수 공급될 예정이다.

서은홍 기자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8년단 1707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박현희(740616-2567614)
 최후주소: 순천시 해룡면 기적의도서관길 90, 306동 402호 (부영아파트)
 등록기준지: 목포시 죽교동 176

위망 박현희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9년 1월 30일

공고인: 1. 박순심, 2. 박경원 (청구인 2는 법정대리인(후견인) 박진우)
 주소: 순천시 해룡면 기적의도서관길 90, 306동 402호 (부영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2019년 1월 25일
 공고기간: 2019. 1. 30 ~ 2019. 3. 31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기장대리
- 양도상속증여
- 건설면허신청
- 기업진단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중앙지구)
 TEL: 062-603-1060 FAX: 062-603-1062
 H-P: 011-641-6152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설립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으뜸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세상의 뉴스를 아낌없이...

湖南新聞이 지역공감·미래창조·정문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 구독신청 · 광고문의 : 062-224-5800
- 기사제보 ·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